

예배로 나아감	추석을 맞아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인도자
신앙고백 사 도 신 경	다같이
찬 송 찬 478장(통 78장)	다같이
기 도	말은이
성경말씀 시편 19편 1절~14절	다같이
설 교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우리집	말은이
찬 송 찬 438장(통 495장)	다같이
중보기도	가족들과 하나님께 감사한 일을 나눈 후 함께 기도하고, 인도자가 마침기도를 합니다.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 본문 : 시편 19:1-14

1.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2.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3.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4.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5.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6.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함이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7.여호와와 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8.여호와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9.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10.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11.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12.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오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13.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14.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추석가정예배



메마른 땅이 변하여 源泉이 되리라 (사 35:7)
대한예수교
장로회 원천교회

(통일 78) **참 아름다워라** 478

1.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2.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3.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저 아침해와 저녁놀 밤하늘 빛난 별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 소리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그 소리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 다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 다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 듯 하도 다 아멘

(통일 495) **내 영혼이 은총 입어** 438

1.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2. 주의 얼굴 뵈기 전에 멀리 퇴던 하늘 나라
 3.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 다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 다
 내 주 예수 모신 곳 이 그 어디나 하늘 나라

할렐루야 찬양 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 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예로부터 농경사회였던 우리나라에서 추석은 연중 최대의 명절이었습니다.
 이날에는 햅쌀로 빚은 송편과 여러 가지 햇과일과 음식들을 장만하여 이웃과 다정하게 나누어 먹으며 정을 나누는 날로 한 해 중 어느 때보다 풍성하고 즐거운 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던 사람들은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하지 못했고, 그래서 조상들과 자연에 감사하는 차례를 지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감사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9편은 다윗이 쓴 시로, 다윗은 자연 만물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보이거나 들리십니까?
 산을 보고,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들이 발견 되시나요?
 그냥 바라보면 알 수 없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지혜가 발견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이구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증거하고 있구나.'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기 모인 우리들도 다윗과 같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연과 만물과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연과 우리 삶의 환경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거나 우리가 가만히 관찰하지 않으면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듣고,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언어로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는 "영혼을 소성시키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능력이 있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하여" 바른 길로 가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영원하고 진실하고 의롭다." 합니다.
 지식이 아니라 지혜라고 표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알게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되니 눈이 밝아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바른 길을 가게 합니다.
 그 길을 가니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샘솟게 됩니다. 이 기쁨은 영원하여 우리를 영원한 의로움으로 인도해 줍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세상이 주는 어떤 달콤함과 기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우리 가정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말씀으로 기쁨을 누리는 다윗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결단합니다(14절).
 "나의 입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시고, 앞으로도 복 주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뿐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말과 생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되어서 모두 하나님께 올려드릴 만한 것이 되길 원합니다.
 풍성한 계절 추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발견하며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